

지역 소식통

부안군, 비대면 구강지킴이
달리버리 서비스 사업 실시

부안군은 코로나19 및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른 대면 구강 보건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유아 및 아동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 구강지킴이 달리버리 서비스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강지킴이 달리버리 서비스 사업은 부안군 관내 어린이집과 병설 유치원 45개 신청 기관에 다양한 구강보건교육 자료가 저장된 USB와 비대면 구강지킴이 달리버리 박스(교육 물품 및 홍보물 등)를 1주간 지원한다.

달리버리 박스에는 잇솔질 교습을 위한 차아염소, 차아세균 체크기(덴티노트), 불소 양치 용액, 차아염소를 돕는 색칠공부 홍보물의 칫솔세트 등 10여가지의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가로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보건소 구강보건실(580-3818)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어린이집 고창
친환경쌀로 원아 급식

고창군 어린이집 아이들이 이달부터 높은고창 친환경쌀로 급식을 먹게 됐다.

7일 고창군에 따르면 '어린이집 급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지역 어린이집 20곳에 높은고창친환경쌀이 본격 공급된다. 고창군이 어린이집에 높은고창 친환경쌀 구입비 차액과 자부담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은 고품질의 친환경 쌀을 통해 성장기 영유아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돕고, 높은고창 친환경쌀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높은고창 친환경쌀'은 친환경단지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우량이 농법을 사용해 생산된 쌀이다. 밥맛을 결정짓는 아밀로스과 단백질 함유량이 낮아 찰기가 좋고 구수한 향, 깔끔한 맛이 특징이다.

군은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만족도 조사, 불편사항 개선 등 사업 모니터링을 거쳐 향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까지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황윤석실학도서관' 확정

고창군, 신축 도서관 명칭... 지역출신 학자 이름 유래

전북 고창군이 건립중인 공공도서관 명칭을 지역출신 학자의 이름에서 유래한 황윤석 실학도서관으로 최종 확정됐다. 7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5일 지방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 2024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공공도서관 명칭을 '황윤석실학도서관'으로 확정했다.



이후 명칭 선호도 조사 결과를 참고해 지난 5일 고창군 지방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친 결과 우수작 5건은 1위 황윤석실학도서관, 2위 모양도서관, 3위 고창어울림도서관, 고창군립

녹두도서관, 고창군립모양도서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1위(최우수)로 선정된 '황윤석실학도서관'이 공공 도서관 공식 명칭으로 확정됐다.

황윤석은 고창군 성내면 출신의 조선 후기 3대 실학자로 "군자는 하나의 사물이더라도 모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君子恥一物不知)"를 평생 좌우명으로 삼아 그의 학문적 지향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인물을 도서관 명칭으로 사용함으로써 도서관의 정체성과 고창의 역사성을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고 조선시대 새로운 지식인의 지혜로움을 계승하는 의미가 있어 공공도서관 명칭으로 적격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고창=김영식 기자

R&D기획 연구그룹 지원사업 과학기술 인프라 조성

정읍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열고 지역발전 위한 3개 사업 선정

정읍시가 첨단산업단지 소재 R&D 기관의 우수자원을 활용해 지역발전 특화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기획사업을 발굴하고자 지역혁신기관 융복합 R&D 기획 연구그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정읍시가 첨단산업단지 소재 R&D 기관의 우수자원을 활용해 지역발전 특화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기획사업을 발굴하고자 지역혁신기관 융복합 R&D 기획 연구그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역혁신기관 융복합 R&D 기획 연구그룹 지원사업'은 정읍의 현안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정읍시 소재 연구기관과 기업 간 연계 협력을 통해 혁신 사업을 발굴·제안하는 기획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월 공고해 첨단방사선연구소와 한국원자력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등 8개의 연구기관과 기업에서 3개의 융복합연구그룹을 구성하고 그룹별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접수된 제안서에 대해 정읍시 과학

기술진흥위원회는 지난 6일 심의회를 열고 △사업추진의 협력성 △지역 연관성 △현안 해결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했다.

심의회는 향후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국가 예산 확보가 가능한 3개의 기획사업을 선정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천 벚꽃축제 취소... 유튜브 영상 공개

정읍의 대표적인 벚꽃 명소인 정읍천 일대와 내장산 저수지 주변에 벚꽃이 피어 절경을 향해가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정읍천변과 내장산 벚꽃 터널 등 정읍의 벚꽃 명소가 분홍빛으로 물들며 상춘객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정읍천변 벚꽃길과 단풍생태공원에서 내장산으로 들어가는 길목의 벚꽃 터널은 정읍의 대표적인 벚꽃 나들이 명소로 꼽힌다.

호르는 물소리와 함께 가족이나 연인끼리, 또는 친구들과 손잡고 소소한 얘기를 나누며 여유롭게 거닐기 좋다.

또 내장저수지 주변 벚꽃 터널은 새하얀 벚꽃과 노란 개나리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며 드라이브 명소로 손색이 없다.

여기에 따사로운 봄 햇살을 받은 저수지 수면도 반짝반짝 빛을 내며 정취를 더한다.

시는 매년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축제



를 열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축제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들의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기 위해 벚꽃이 만개한 정읍의 아름다운 봄 정경을 영상으로 제작해 온라인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미래 100년을 준비할 것"

이학수 정읍시장 예비후보, 지역경제와 일자리 분야 9개 공약 발표



이학수 정읍시장 예비후보가 정읍발전 정책공약 두 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내 구인과 구직을 총괄하는 일자리 중계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기업유치 정책을 통해 인력수급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학·관 협력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하고 기업에는 맞춤형 인력을 제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통해 정읍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과학기술, IT,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지역자산을 활용하는 특화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재차 청년 일자리를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세부 실행계획으로

일자리 분야에서 ▲농생명·바이오 첨단산업단지 조성 ▲취업 중개센터 설치 및 외국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경력단절·새일여성 취업 지원 확대와 경제 분야 ▲공익형 신재생 에너지 발전(發電) 수소·축산분뇨태양광사업단 추진 ▲사회적·마을기업 창업 및 활성화 지원 강화 등 9가지를 꼽았다.

이중 '농생명·바이오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현재 정읍은 3대 국제연구소를 보유하고 R&D 기반과 함께 바이오 관련 산업의 적지로 평가되고 있으나 이를 생산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업이 부족하여 연구성과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을 해소하고 지역의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입원 일원에 농생명·바이오 첨단산업단지 조성하고 관련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공익형 신재생 에너지 발전(發電) 수소·축산분뇨태양광)사업단 추진' 공약은 도로의 법면(비탈길), 등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을 공익화하고 취약계층 복지에 활용을 목표로 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만들기 7대 프로젝트'

김민영 정읍시장 예비후보, '정읍 대도약 시대' 로드맵 제시



김민영 정읍시장 예비후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는 7일 "전북 서남권 거점 도시로 준비하는 정읍을 만들기 위한 7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정읍 대도약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김민영 예비후보는 "정읍이 정읍답게 발전할 때 '정읍의 대도약 시대'를 열어가게 될 것"이라며 "역사 문화 환경, 인물 등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정읍만들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국도 1호선을 축으로 농생명 바이오 혁신벨트를 구성하고, 제2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 3대 국제연구기관을 묶어 농생명 클러스터단지를 조성하고 농산업 기능식품, 의학 등 첨단산업을 키워 정읍의 미래먹거리로 육성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정읍을 '도심 속 정원이 있는 스마트 그린시티'로 키워 구질초 공원

을 국가정원으로 승격시키며 정원도시의 이미지를 키우고, 연지시장 등 도심 유휴부지에 산소정원을 조성한다"며 "이와 함께 정원산업을 키워 시 민들의 소득과 일자리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MICE산업센터를 통해 정읍역 배후단지를 중심으로 문화, 관광, 물류 거점으로 육성한다"며 "시민을 위한 컨벤션 홀, 유희 기능을 집적화하며, 전문인력을 키워 창업의 메카로 키워간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을철에 집중된 관광산업도 사계절 산업으로 육성하고 구질초 정원에 청소년을 위한 치유학습장을 조성한다"며 "한옥호텔과 웃음박물관을 통해 정읍의 특색을 살리고, 정읍을 연계해 워케이션 정읍, 주말엔 정읍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내놓았다.

여기에 "동학'을 스토리로 녹두특화단지를 조성해 농업과 음식문화를 키워가고 건강밥상'으로 정읍을 힐링의 고장으로 키운다"고 역설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